

원어민교사 섬·벽지 기피 심각

신안 등 전문강사 배치 광주 8분의 1 근무여건 개선·인센티브 제공 시급

전남 초등학생들의 영어교육 소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어 공교육강화 사업의 주축인 회화 전문강사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데다,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이 뒤따르지 않은 탓이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국감보도자료에서 전남지역 초등학교 433곳 중

42%인 181곳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시인 광주지역 83.7%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여수와 순천, 곡성지역만 50%를 넘었을 뿐 나머지 19개 시·군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섬 지역인 신안과 완도 등 2곳은 불과 11%와 14%에 그쳤다. 여수의 경우 영어전문강사 배치율이 65%에 달해 신안교육청과 무려 6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간 불균형도 두드

러졌다.
강사들의 기피지역인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에는 모두 14명의 강사가 배치됐으나 중도에 6명이 포기했다.
영어 전문강사 선발인원도 초등 89명, 중등 121명, 고등 210명에 불과, 소 요인원 238명에 28명이나 부족했다.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실시율도 전남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5.3%와 59.1%로 전국 평균 82.9%와 8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준별 이동수업 형태로 권장되는 '확대학급' 비율(수준별 이동수업 실시학교 대비)도 중학교가 45.5%, 고교 37.4%로 각각 전국평균 69%, 58.7%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영어 강사들이 고흥 등 도서지역을 회피한 탓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준별 이동수업(확대학급 포함)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어 강사 배치 등 공교육 강화사업이 놓여진 지역에서 강사 구인난 등으로 정착되지 않아 전남지역 학생들이 소외받고 있다"며 "전남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강사들을 선발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질서확립 업무협약식 및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 다짐대회

2010. 10. 15

주최 법무부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선진교문문화 범시민운동본부

교통질서 꼭 지켜주세요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질서확립 업무협약식 및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다짐대회가 1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운태 광주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초질서 등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

단속 비웃는 음란전단지 살포

숨방방이 처벌 근절 안돼...배포 조직 잇단 검거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전단지 무차별 살포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은 전남 오후 8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유흥가 일대에서 선전적인 사진을 배경으로 음란전단을 배포하던 나모(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이날 여성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음란성 명함형 전단 1만1000매 중 일부를 무차별 살포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씨가 소지한 전단을 압수하고, 30대 중반의 또다른 남성으로부터 8시간당 8000원과 소정의 유통비를 받기로 했다는 나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단 공급처의 행방을 찾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 7월12일부터 광주시의 요청으로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음란전단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법

전단지 살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광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온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1년 남짓의 영업기간 동안 배포한 성매매 전단지는 2000여만 장으로 11 화물차 15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유흥가나 주박가를 중심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전단 배포가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리산 등반 실족 교수 순천소방서 헬기 구조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는 15일 오전 7시경 구례군 지리산 세석산장 인근에서 실족해 다친 서울대 의대 A(여) 교수를 소방헬기로 구조했다.
A씨는 일행과 노고단 대피소에서 세석산장 방향으로 산행하던중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 등을 다쳤다.
산고를 받은 산악구조대는 긴급 출동해 응급 처치를 한 뒤 소방 헬기로 A씨를 이송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산악 사고가 늘고 있다"면서 안전장비 준비, 몸 상태에 따른 산행강도 조절, 일출·일몰 1~2시간 전후 산행 자제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고 지정된 등산로 이외의 지역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국립대 학점 퍼주기 학생 경쟁력 저하"

국립대학교의 '학점 퍼주기'가 학생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혜규(한나라당) 의원이 전남대와 제주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의 전공과목 평균 성적은 A학점 43%, B학점 30%였다.
제주대는 A학점(46%), B학점(34%)을 받은 학생들이 80%에 달했다.
전남대와 제주대는 성적관리 지원

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Y업체가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3월 전보 조치됐다.
이씨는 조달청 자체공사에서 "공사 중지기간이어서 업체 관계자를 만날 일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향응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3일 체포된 유 경감 외에 전남경찰청 직원이 7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44) 김종두



김희선 前 의원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구 지역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검 최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서 "김 전 의원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목포시의원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목포시의회 박모(51)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6·2 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만호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린 뒤 조직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수천건을 보내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없앨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골프장 비리 교수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15일 골프장 측의 청탁을 받고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박인희 전 김제시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차 뇌물취득 등)로 전주대 교수 최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초 9월 이던 김제시 흥사동 스페이스 골프장이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측에서 받은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수기기자 knews@

교통카드 사용하다 절도 들뜸

○교통카드와 현금의 차이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을 훔쳐 사용한 10대가 피해학생의 '잔과'에 속아 절도행각이 들뜸.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3년 이모(18)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6시30분경 자신의 교실 사물함에 같은 반 학생 윤모(18)군의 지갑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교통카드와 현금 1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이군은 지갑을 훔친 사실이 들 통발까봐惶恐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교통카드의 일련번호를 사전에 적어 놓은 윤군이 일부러 교실에서 "교통카드 번호를 모르는데 큰일났다"고 말한 것을 듣고, 2차례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가 버스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혀 범행이 들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학습공간 부족 배상하라" 전남대생들 5억 소송 패소

전남대 학생들이 학습공간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한 5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최근 전남대 생명기술훈부 재학생 249명과 졸업생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습권 침해를 근거로 학생들이 직접 제기한 데다

청구액이 5억원대에 달해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실형 기자재 등 미비로 일부 사립대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있었지만, 국립대 학생들이 학습공간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경호기자 squeez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9분
해질 17시 57분

달돋이 14시 17분
달질 00시 11분

농작물 관리 유의

일부 산간지역에 서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날씨 | 기온 |
|-----|----|--------|
| 광주 | 맑음 | 11/22℃ |
| 목포 | 맑음 | 11/20℃ |
| 여수 | 맑음 | 15/21℃ |
| 완도 | 맑음 | 12/21℃ |
| 구례 | 맑음 | 8/22℃ |
| 해남 | 맑음 | 9/21℃ |
| 장흥 | 맑음 | 9/22℃ |
| 고흥 | 맑음 | 10/22℃ |
| 순천 | 맑음 | 11/23℃ |
| 영광 | 맑음 | 10/21℃ |
| 전주 | 맑음 | 10/22℃ |
| 진주 | 맑음 | 10/21℃ |
| 남원 | 맑음 | 6/20℃ |
| 확산도 | 맑음 | 15/19℃ |

중등생 납치해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7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함으로써 6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감을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엄중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연합뉴스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날씨 | 최저/최고 |
|-------|----|-------|
| 17(일) | ☀ | 11/23 |
| 18(월) | ☀ | 11/23 |
| 19(화) | ☁ | 11/20 |
| 20(수) | ☀ | 11/21 |
| 21(목) | ☀ | 10/20 |
| 22(금) | ☀ | 9/21 |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빚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최대 외화 50%환율 / 월별 연회 2천 원 무료 / 주회, 연회 2천 원 환 / 학원, 병원, 편의점

하나SK 카드

5427 0725 5678 7032

HANASK KFH SHEN YONG

07/12